

정부, 전기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지경부, 6월8일 한전 인상안 13.1% 타당성 검토 ... 산업계는 반발

정부가 전기료 인상에 대한 공식논의를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6월8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평균 13.1%의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전의 인상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연구소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6월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기 수급사정이 급박한 만큼 콘센트 뽑기, 출입문 닫고 냉방기 가동 등 절전에 동참해 달라”며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가급적 여름 성수기인 7월이 오기 전에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 전기료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2011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은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8>